

# 여성용 수영복 내구성과 기능성에 제품 간 차이 있어

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(2024. 7. 5.)

 한국소비자원이 여성용 수영복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제품별로 내구성과 기능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.

- 한국소비자원(원장 윤수현)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의 여성용 수영복 10개 제품(폴리에스터·폴리우레탄 소재 7개, 폴리에스터 소재 3개)에 대해 기능성, 내구성 등 품질 및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, 신장률 등의 기능성과 파열강도 등 내구성에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.

## 【수영복 품질 비교】

- 대상 제품 : 수영복 8개 브랜드의 10개 제품
  - 조사 항목 : 기능성(신장률, 신장회복률), 내구성(봉합강도, 파열강도 등), 색상변화(땀견뢰도, 물견뢰도 등) 안전성(폼알데하이드, pH 등), 표시사항 및 제품특징 등
- 입고 벗을 때 편의성에 영향을 주는 신장률 및 걸감을 일정하게 늘렸다 원래 길이로 되돌아오는 시험을 반복했을 때 원상태로 회복되는 정도를 평가하는 신장회복률을 시험한 결과,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.
  -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의 안전기준 부속서1(가정용 섬유제품)에 따른 폼알데하이드, 아릴아민, 유기주석화합물, pH 및 피부에 직접 닿는 사용환경을 고려해 알려지성 염료 검출 여부를 시험한 결과,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.
  - 외부요인에 의한 색상변화 정도는 시험대상 전 제품이 권장기준을 충족한 반면, 수영복 걸감과 봉제 부위 강도는 제품 간 차이 있고 스넥성은 전 제품이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을 만족했다.
  - 시험대상 10개 제품의 표시사항과 온라인 정보를 확인한 결과, 6개 제품은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관련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했다.
-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기능성 의류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'소비자24(www.consumer.go.kr)'에서 제공할 예정이다.